

■ 전국탐구대회 대상
한마음선원 김지니양

BBS 개국 9년

김용림·김병조

9년간 매일 음성포교



참선하니 공부 잘돼
훌륭한 과학자 '꿈'

"환경오염에 대해 연구하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 속에 계신 부처님께서 생각을 깊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4월25일 중앙교육문화사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자율탐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지니 어린이(충주 무극초등 4). 어릴 때 부터 부모님과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을 다니고 있는 김지니 어린이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일요일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지니 어린이의 탐구주제는 '꽃은 물을 얼마나 먹을까?'. 꽃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꽃이 흡수하는 물의 양을 연구했다.

"법회시간이나 수련회에서 스님들께 참선을 배웠는데 참선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참선수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림씨.

9년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여법하게 불교방송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는 음성 포교사. 개국 9년째를 맞이한 불교방송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고동락 해온 탤런트 김용림씨(59)와 코미디언 김병조씨(50)가 바로 그 주인공.

이 두 불자 방송인은 90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9년동안 매일 마이크 앞에 서서 삶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며 때론 감동법문을 통해 심신을 위로하는 등 음성 포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매일 아침 6시55분부터 5분간 '신행 365일'을 통해 갈로수 같은 경구를 들려주는 김용림씨. 1주일분량을 하루에 녹음하는 김용림씨는 짧은 방송 시간이지만 경전 공부 한다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 방송을 하고 있다.

김용림씨의 차분하면서도 잔잔한 음성엔 실린 '신행365일'은 경전속에 있는 문구중 불자들이 일

주목같은 경구 낭송 생활속 신행 길잡이 "초발심 자세로 최선"

상이나 신행 생활에 필요한 경구를 발췌해 낭독해 주고 있다. 방송하기 전에 항상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 들려 참배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김용림씨는 "종교가 없었던 변호사 한 분이 '신행...'을 매일 출근길 차안에서 들으면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서초동 수안사를 자주 찾는 김용림씨는 활영이 없는 일요일이면 사찰에 나가 사시불공을 올리기도

재치와 구수한 입담
청취자 사로잡아
연령·종교초월 '인기'

하며 안방에도 부처님을 모셔놓고의출시에 꼭 부처님께 참배를 하는 등 불심이 돈독하다.

4월에 '99 한국프로듀서상 시상식 라디오부문 진행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병조씨는 매일 밤8시55분부터 9시까지 '김병조의 다시듣고 싶은 노래'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불교방송에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국악 프로그램인 '옛가락 우리노래'.

당시 박동진,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유수의 국악인들이 대거 출연했던 이 프로그램은 입담이 뛰어난 김병조씨의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공헌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김병조씨는 93년부터 현재 맡고 있는 포교의 모태가 됐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병조의...'는 연령과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청취층을 확보하고 있다.



◇김병조씨.

첫 방송을 하던 개국일이 마침 자신의 생일날이어서 불교방송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다는 김병조씨는 "언젠가 제 프로의 인기 코너인 '배추머리 노래방'에 9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를 했었다"며 "보통 방송국 전화 연결 프로엔 청소년들이나 나이 지긋한 보살님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격려 해 주 보람을 느꼈다"고 감회를 털어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⑭

"규칙적인 생활 및 운동, 소식(小食)하는 습관이 정월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일 개국 9주년을 맞이한 불교방송의 성낙승사장(64). 건강만큼은 아직도 젊은 직원을 못지않게 자신 있다는 성사장은 사실은 26세때부터 위(胃) 때문에 몇 년간 심한 고생을 했었다. 당시에는 죽도 제대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40kg으로 줄어졌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지요.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성사장은 병원을 나서서는 즉시 서점으로 달려가 위 투병기를 사서 읽었다. 그때부터 책에 적혀진 대로 물구나무



성 낙 승

(불교방송 사장)

주말 가까운 산사 찾고 小食

물구나무서기 등 요가 운동 꾸준

서기와 재자리뛰기를 포함한 요가 동작 등 10여가지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새벽 5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1시간씩 운동을 했으며, 식이요법으로 미식가구를 유유에 타마시고 소화에 좋다는 인절미를 규칙적으로 먹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지 10년 만에 위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지방이나 해의 출장을 가서도 정해 놓은 운동만은 철저히 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출장때 같은 방을 사용했던 동료가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예순이 넘는 지금도 규칙적인 운동을 일과로 생각하고 있는 성사장은 주말마다 등산 겸해서 북한산 승가사, 문수사, 일선사 등을 함께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소개한다.

성사장이 1년전 불교방송 사장에 취임했을 때 경제 한파 이후 방송국 사장이 어려워져 경영자로서 신경 쓸 일이 많았다. 하지만 평소 건강한 체력은 강한 정신력과 발원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집념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믿는 그에게 정신력으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다. 또 성사장은 욕심을 줄이고 안분지족하는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아름다운 봉축 화음"

명성여중 교내 합창대회

명성여자중학교(교장 안은자)가 4월30일 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교내합창대회.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한달 동안 준비해 온 합창곡 발표순서를 기다리며 다른반 친구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날 합창대회에서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팀은 1학년 7반 학생들. 총 29개 참가팀 가운데 유일하게 찬불가 '연등'을 합창곡으로 선곡해 부르기도 했지만 직접 만든 컵등을 들고 나와 아름다운 화음과 울음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실실습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스님들께 좋은 선물을 하께 더욱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어린이 특유의 동심으로 각양각색의 부처님이 하얀 도화지와 원고지에 나타났다. 5일 봉사사에서 열린 제5회 부처님그리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이태이(대림초1) 어린이는 '수영복 입은 부처님'을 그려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2일 대법당 광주지가 주최한 제7회 연꽃피우는 백일장에서는 김해진양(차평중1)이 '부처님'으로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편집자 주)

시

부처님 김해진(차평중1)

나무는 불평하지 않아요. 다만 인내할 뿐이죠. 부처님 마음처럼요.

나무는 욕심부리지 않아요. 다만 베풀 뿐이죠. 부처님 자비처럼요.

나무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할 뿐이죠. 부처님 사랑처럼요.

우리는 부처님이라 부르죠. 인내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그를...

그림



◇월간 <불광> 주최 제5회 부처님그리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이태이 어린이의 '수영복 입은 부처님'.



◇제1회 연꽃노래잔치가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대상 강릉자비원 윤상아양

11회 연꽃노래잔치... 최우수단체상 한마음선원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가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11회 '연꽃노래잔치' 전국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가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펼쳐졌다. 4월18일부터 진행된 예선전을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팀은 독창부문 총 42명과 중창부문 4팀, 합창부문 6팀 등. 그 어느 해보다 우수한 기량과 참신한 내용을 선보인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 대상은 '나의 마음은 바다'로 독창을 한 강릉자비원의 윤상아 어린이가 수상했으며, 최우수단체상은 47명이 입울 모아 '내가 없는 이름의 노래'를 합창한 한마음선원 팀에게 돌아갔다. △금상 이정민(상명초등) 한유라(강릉자비원) △은상 오혜영(은석초등) 이강혁(은석초등) △은상 주영지(은석초등) 공영은(지장사)

청소년 단선

고등학생 15장 내외다. 우편접수 가능. (02)722-7552

환경포스터·글짓기 공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제5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연사랑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행사의 공모 주제는 '자연사랑·환경보호·공해추방'이다. 참가방법은 △포스터는 초등학교 8절지, 중·고등학교 4절지 규격으로 형식은 자유이며 △글짓기는 초등학교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 중·

인천청교련 운영위원 위촉

청교련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4월29일 인천 올림픽호텔에서 99년 1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의 김기수 장학관과 한국케이블TV 남동방송 이관원 대표이사 등 25명의 운영위원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99년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소개 및 080불법폰팅 규제운동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불교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고도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여류불교학교를 맞이하여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 인원의 분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어린이법회프로그램 공모, 전시 및 시상식으로 지도자들의 사기와 참여도를 높이며 석굴암에서 해돋이와 함께 새 천년을 맞이하는 21C 어린이 포교방향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2543년 4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총재 정관 ■부총재 배충·천오 ■회장 덕진 ■상임부회장 정영
- 부회장 윤성, 설봉, 해관, 무등, 영조, 심산, 성형, 영진, 안성
- 감사 지정, 박창식

제27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슬기로운 어린이. 활기찬 미래 불교"
♣일시 : 2543년 6월 5일(토)16시~6일(일)13시 ♣장소 : 경주온천관광호텔(0561-746-6661~4)

- 동참금 : 3만8천원 (미리접수시-3만5천원, 군종병·도사벽지 지도자-2만원)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분
- 지급품 : 1박3식, 연수회자료집, 어린이 여류불교학교 교재, 여류불교학교용 찬불가 테이프, 포스터
- 신청방법 : 1. 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반별수업(선덕)으로 인해 미리 신청 바랍니다. ·기간 : 5월1일~5월29일 까지(미리접수) ·접수담당 : 정희순 ·우체국 : 601310~0037877-11 ·예금주 : 대불어 (조중환)
- 강의준비물 : 마분지1장, 가위, 60cm나뭇막대기 1개, 칼, 셀로판 테이프 (반별 수업중 강의 6 (만석중 놀이)을 신청하신 지도자님만 준비)
- 문의 : 본회사무국 ☎ (051)808-4569~70 FAX (051)808-4571 PC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제1회 우수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 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C 어린이 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1.주 최: 사단법인 불국토
2.주 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3.참가대상: 전국 사찰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4.응모기한: 99년 5월 15일 까지 접수
5.응모내용: -현 어린이 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 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6.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식: 6월 5일 ~ 6일 연수회 중 (상장 및 상금 수여)
7.기타 참가 안내: 동년 6월호 참조, 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

내 용	감 사	비 고
강의1 21C 어린이 포교의 방향	정련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강의2 부처님의 노래를 불러요!	정 유 탁	풍 경 소리
강의3 '모닥불 놀이'준비에서 진행까지	박 철 수	도레미 이벤트 대표
만나서 좋은 벗이여		지구별 모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		석굴암 참배 및 해돋이
우수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전시		
강의4 하나: 재미있는 놀이의 현장	이 선 우	한국REC여가 협회장사
강의5 둘: 자연에서 부처님을 느껴요	장 상 욱	자 연 놀 이
강의6 셋: 만석중 놀이(파일놀이)	한 계 순	제주 무대미술연구
강의7 넷: 여류불교학교의 모든 것	조 정 미	천이초등학교사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강의8 우리의 것을 소중히 느껴요	박 옥 주	남양초등학교사

- 각 지역 문의처
·서울·경기지구 (02)433-1506~7 유지선 사무국장
·부산지구 (051)853-5486~7 이선경 총무차장
·광주지구 (062)365-0367 덕영사 무등스님 (본회임원)
·대전·충남지구 (042)633-1141 류재희 사무국장
·경남지구 (0551)242-0108 천명숙 사무국장
·대구지구 016-505-3143 김형중 사무국장
·제주지구 064)721-7942 김봉현 사무국장
- 본회 어린이 잡지 발간
"연꽃"어린이법회 교재